

# France

## 프랑스는 전쟁중, 신문 <르 몽드>와 책 《르 몽드의 이면》의 싸움



박해현 \_ 조선일보 파리특파원

프랑스의 최고 권위 일간지라면 단연 파리에서 발행되는 석간신문 <르 몽드 Le Monde>가 꼽힙니다. <르 몽드>는 다아시다시피 '세계' 라는 뜻인데, 프랑스어에서 '톨르 몽드 Tout le monde'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즘 파리의 출판계에서는 "톨르 몽드가 '르 몽드' 에 대해 말한다 Tout le monde parle du Monde" 라는 유행어가 돌아다닙니다.

<르 몽드>가 비판 언론을 지향한다는 창간 취지를 벗어나 거대한 언론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고 공격한 책 《르 몽드의 이면裏面 La face cachée du Monde》이 지난 2월 말 출간 이후 현재까지 25만 부 이상 팔린 가운데, <르 몽드>가 적극적으로 역공을 취하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심층취재 전문 언론인 피에르 페양, 필립 코엔이 공동으로 펴낸 《르 몽드의 이면》은 '반反 권력에서 권력 남용'이란 부제를 내걸고 무려 600쪽이 넘는 분량에 걸맞게 <르 몽드>를 향해 신랄한 문체로 말의 용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 책입니다. 1994년 <르 몽드>가 장마리 콜롱바니 사장의 체제 출범 이후, 코르시카 섬의 분리 독립에 우호적인 지면 등을 통해 프랑스 국익에 반대되는 지면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문사의 영향력을 남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았고, 거대 언론 그룹을 지향하는 확대 경영을 펼치면서 회계부정도 저질렀다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르 몽드>는 노르웨이 언론 그룹의 무가지가 파리에 상륙한 것을 두고 사설에서 "혼이 없는 신문"이라고 비난해 놓고서는 무가지들 중의 하나인 <20분>을 인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신문의 파리 진출을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 뒤 거액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치부까지 들추어냈습니다. 또한 <르 몽드>는 중도 좌파신문을 표방하면서 점차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이념적 불만도 이 책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 몽드>가 하루 평균 40만 부를 발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신문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25만 부 이상 팔렸다면, 물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르 몽드> 기자들은 무려 600쪽이 넘는 이 책에 대해 "600개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르 몽드>는 사설을 통해 "비판과 열정은 별개의 것인데, 가장 슬픈 열정은 증오"라며 "이 책에 그 증오가 살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르 몽드>는 지면을 통한 반박과 인터



넷 사이트를 통한 독자와의 대화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일 책의 저자와 출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르 몽드>의 장마리 콜롱바니 사장, 에드위 플레넬 편집국장, 알랭 멩크 주주 이사회장 3인은 손해 배상금 100만 유로(약 12억 원)를 요구했던 것이지요.

<르 몽드> 측은 “언론자유를 존중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포기했지만, 중상 모략과 인신공격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르 몽드의 이면》 저자들은 소송을 당하자 “배상금액이 과도하고, 예외적”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데는 TV와 라디오의 힘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은 최고 권위의 정론지에 맞서기로 한 저자들을 연일 출연시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콜롱바니 사장과 플레넬 편집국장은 지난 3월 초 프랑스 2TV의 독서 토론 프로그램 <캥퀴스>에 출연, “우리를 향해 모략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공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공격을 당한 것은 <르 몽드>가 아니라 저널리즘”이라고 반박해야 했습니다.

《르 몽드의 이면》은 내용 못지않게, 출판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책을 펴낸 ‘밀 에 윈 뉘’는 대형 출판사 파이야르의 계열사로 알려진 출판사입니다. 파리야르에서는 이 책의 출간 준비를 사장과 담당 직원만 알고 있었고, <르 몽드>가 사전에 책의 출간을 저지할 것을 대비해 스페인에서 초판 6만 부를 몰래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내기 전에 <르 몽드>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주요 내용을 대거 발췌해서 신도록 함으로써 일단 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에서 기세를 잡았습니다. <렉스프레스>의 소유 구조를 추적해 보면, 라팔 전투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다스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은 <르 몽드>와 경쟁하는 중도 우파 일간지 <르 피가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 몽드> 측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거대 언론 그룹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탓인지 <르 피가로>는, <르 몽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르 몽드>와 이념적으로 같은 중도 좌파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이 연일 <르 몽드>를 공격하는 기사를 실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40대를 주 독자층으로 삼는 조건 신문 <리베라시옹>은 <메트로>, <20분> 등 지하철에서 아침마다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치의 등장으로 인해 지난 한 해 파리에서만 10퍼센트의 판매부수 감소를 겪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석간이기 때문에 무가지 피해를 입지 않는 <르 몽드>가 무가지 중 하나를 인쇄했다고 하니,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르 몽드> 논쟁에 대해 미디어 전문 사회학자인 장마리 샤롱은 일간지 <파리지앵>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르 몽드>와 같은 정론지들, 가령 미국의 <뉴욕 타임스>, 스페인의 <엘 파이스>, 독일의 <디 벨트> 등이 있지만, 공권력을 감시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라며 “<르 몽드>가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신문권력’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르 몽드의 이면》에 대한 독자 반응에 대해 “일부는 기자들과 그동안 규제받지 않은 언론을 비판하는 것을 즐길 것이고, 일부는 엘리트 집단 내부가 모두 썩었다고 단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론권력 문제의 핵심을 겨냥한 경청할 만한 충고로 들립니다. **주문**